

다문서 읽기 연구의 연구 동향과 전망

김종운 공주대학교 강사

- I. 서론
- II. 다문서 읽기의 개념
- III. 다문서 읽기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V. 다문서 읽기 연구의 발전 양상 및 전망
- V. 결론

I. 서론

읽기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는 말에 드러나듯, 과거에는 하나의 글을 숙독하여 글이 지닌 충분한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읽기의 중요한 과제였다. 출판된 책은 독서 공동체에 의해 가치 있는 정보와 지혜가 담겨 있는 글로 받아들여졌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하여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재구성해내는 것이 독서의 중요한 목표였다. 인터넷, 이동통신기술,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서는 양질의 글뿐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수준과 관점의 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자가 글을 읽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에서 변화하고 있다(Leu *et al.*, 2004). 하나의 글을 깊이 있게 읽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를 수집, 비교, 통합 및 평가하는 읽기가 중요해진 것이다. 다문서 읽기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다양한 글을 읽는 과정, 전략, 목표를 탐색하는 읽기 연구의 한 영역이다.

다문서 읽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다문서 읽기의 기회

가 다양하다는 데 있다. 수행평가를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는 중·고등학교생들에서부터, 기말 과제를 위해 여러 책과 논문을 찾아 읽는 대학생, 쟁점이 되는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신문 기사 뉴스를 비교하며 읽는 회사원, 상품 구매 전 여러 사람이 쓴 상품 구매 후기를 비교하며 읽는 소비자의 모습까지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서의 정보를 찾아 읽고, 판단하고 비교하며, 이용하면서 살아간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성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며, 이용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Stahl *et al.*, 1996; Wineburg, 1991). 교육에서 다문서 읽기 연구의 목적은, 독자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생산적이고 비판적이며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외 국어교육 분야에도 다문서 읽기 현실을 반영한 수업 및 평가 방법이 계획되고, 시행 중에 있다.¹ 예를 들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읽기 영역의 목표 중 하나는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54)”이다. 미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의 2013 학업성취도 평가(NAEP)에서의 독서 평가는 “전 학년에 걸쳐 필요한 공통된 목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읽는 능력(NGA, 2013: 12)”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s Standards, CCSS)에서도 다문서 읽기 능력을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였다(NGA & CCSSO, 2010: 14). 비단 미국뿐 아니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도 다문서 읽기 능력을 디지털 읽기와 함께 주요한 평가영역의 하나로 선정하였다(OECD, 2009: 28). 다문서 읽기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문식성인 것이다.

1 국내외 다문서 읽기 관련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읽기지도(김도남, 2002), 교재구성(유정희, 2006),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독서토의(백혜선, 2014), 담화종합을 위한 쓰기 과정 및 지도(박소희, 2009; 이윤빈, 2013; 유승아, 2013)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문서 읽기의 교수 학습이 점차 반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문서 읽기의 개념을 고찰하고, 다문서 읽기 이론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방향,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조망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문서 읽기연구 및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발에 기여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다문서 읽기의 개념

다문서 읽기의 개념은 무엇이고, 다문서 읽기는 하나의 글을 읽는 것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문서 읽기(multiple text comprehension)²는 여러 글(문서)³에 함의된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 복수의 글을

-
- 2 다문서 읽기 용어는 영어와 국어에서 표현이 다양하다. 우선 외국에서는 다문서 읽기를 multiple text comprehension(Bråten *et al.*, 2009), multiple source comprehension(Goldman *et al.*, 2012)', multiple documents comprehension(Rouet, 2006)', 'inter-textual reading(Hartman, 1995)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중텍스트 읽기(김도남, 2002), 복합 문서 읽기(최숙기, 2014), 다문서 읽기(조병영 · 서수현, 2014)로 사용한 바 있다. 이 용어들은 각기 세부적인 강조점이 다르지만, 독자가 둘 이상의 텍스트 자료를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의 multiple text에 해당하는 말이 복수 텍스트이므로 '복수 텍스트 읽기'라고도 직역하여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둘 이상의 글을 개별적으로 읽는 상황도 포함하여 의미가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여러 글(문서)을 통합하여 읽는다는 의미에서 조병영 · 서수현(2014)의 용어 사용을 따랐다.
 - 3 'Multiple text(document) comprehension'이란 용어에서 텍스트 혹은 문서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Britt과 Rouet(2011)에서는 텍스트를 단어로 구성된 글을 넘어서, 도표 및 그림, 필름 등 시청각 매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텍스트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서 읽기 연구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광의의 관점에서의 다문서(multiple texts)를 바라볼 경우, 다매체(multi-modality) 읽기를 포함하는 등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다문서 읽기에서 텍스트의 범위를 언어적 문장과 단락

읽는 행위를 모두 다문서 읽기로 규정한다면, 그 개념이 모호해질 뿐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어렵다. 그러므로 다문서 읽기의 개념을 정치하게 기술하기 위해 다문서 읽기의 개념을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방식은 다문서 읽기의 범위를 기본적인 가정(assumption)을 통해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다문서 읽기를 단일 문서 읽기(single-texts comprehension)와 비교함으로써 다문서 읽기를 탐색하는 방식이다.

먼저 다문서 읽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이 방식에서는 독자가 둘 이상의 글을 읽는 모든 상황을 다문서 읽기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인터넷으로 저녁 식사 조리법과 정치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읽은 학생의 독서 행위는 다문서 읽기라기보다는 개별 주제에 대한 개별적 읽기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여러 글 자료를 읽는 행위를 다문서 읽기와 그 외의 읽기 행위로 구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 가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표 1).

표 1. 다문서 읽기 상황의 기본 가정

수준	가정	내용
핵심 가정	자료의 복수성	읽는 글 자료는 둘 이상의 글이다. 하나의 글을 읽는 경우 다문서 읽기라 칭하기 어렵다.
	시간적 인접성	읽는 글 자료는 일정 기간 내에 읽는 글이어야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긴 시간차가 있는 읽기(예: 한 달 전에 읽은 글과 어제 읽은 글 읽기)는 다문서 읽기라고 하기 어렵다.
	주제적 유사성	읽는 글 자료는 하나의 큰 주제 하에서 연결되어 있다. 주제가 연결되지 않은 자료들(예: 컴퓨터 제품사용 설명서와 조간 신문 사설)을 읽는 것은 다문서 읽기라고 보기 어렵다.
부가 가정	단일 자료의 한계성	하나의 글로 전체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읽을 때에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글이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면, 이를 통한 독자의 의미 구성이 편향될 수도 있으며, 굳이 여러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자료의 비동질성	다문서 독서 상황에서 읽는 글의 질, 내용의 수준, 저자의 수준 및 관점, 세부 내용 등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많은 다문서 독서 상황에서 오히려 각각의 글은 동질적이기보다 다양하다.

등으로 구성된 글로 한정하고자 한다.

〈표 1〉에 제시된 핵심가정(자료의 복수성, 시간적 인접성, 주제적 유사성)은 다문서 읽기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정들이다. 이 핵심가정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다문서 읽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글 자료만 읽거나, 하나의 글을 읽은 후 다른 글을 읽을 때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멀거나, 자료들의 주제가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문서 읽기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두 부가적인 가정들(단일 자료의 한계성 및 자료의 비동질성)은 다문서 읽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가정은 아니지만, 다문서 읽기의 성격을 드러내는 가정들이다. 단일 자료의 한계성은 하나의 글 자료가 다문서 전체의 의미를 포괄하기 어려우며, 여러 글(문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야 다문서 읽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낸다(Britt & Rouet, 2012). 자료의 비동질성은 많은 읽기 상황에서의 글의 저자가 다르며, 글의 수준과 세부 내용, 강조점에 편차가 있음을 드러낸다(Perfetti *et al.*, 1999). 정리하면, 위의 다섯 가지 가정들을 통하여 제한된 다문서 읽기는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주제적으로 유사한, 복수의 글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다문서 읽기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지점은 다문서 읽기가 단일 글을 읽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통 하나의 글은 독자 및 출판연도, 출판시기 등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출처(source)와 그 글을 구성하는 내용(cont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글 읽기의 경우에는 출처 정보는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주로 이용되지만, 다문서 독서상황에서는 출처 정보가 문서를 구분하고, 평가하며 통합하는 데 중요한 메타자료(metadata)로 이용된다(Goldman *et al.*, 2012; Perfetti *et al.*, 1999; Rouet, 2006).

아래 〈그림 1〉은 Perfetti 외(1999)와 Rouet(2006)에서 제시된 다문서 읽기 이론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정리한 것으로, 내용 정보와 출처 정보를 통합하여 두 문서를 통합하여 읽는 독자의 심리적 모형(mental representation)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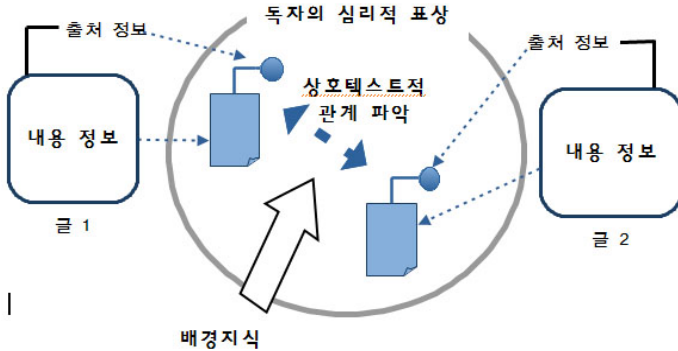


그림 1.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의 독자의 심리적 표상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 독자는 개별 글에서 출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독자는 이들 출처와 내용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성(intertextual relationship)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의 핵심 과제는 출처를 구별하면서 각 글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다(Britt *et al.*, 1999). 다시 말해, 독자는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파악하면서 각 글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독자는 자신의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을 이용하여 다문서의 종합적 의미(global meaning)를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Rouet, 2006). 이때의 종합적 의미란 개별 문서가 지닌 의미를 산술적으로 더한 것 이상이다.⁴ 단일문서 읽기 과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문서 읽기의 심리적 표상 및 과정(예: 출처와 내용 식별, 상호텍스트적 관계성 파악, 다문서의 종합적 의미구성)이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다문서 읽기가 단일 문서 읽기에 비해 더욱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보인다.

4 예를 들어, 독자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두 개의 글을 읽는다고 가정하자. ‘가’의 글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원인이 있다는 글이고, ‘나’의 글은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글이다.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다문서 읽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른 두 글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종합적인 의미 해석은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해 논쟁이 있음을 인식하고, 두 글이 왜 다른지를 자료의 출처, 주장의 논거와 신빙성을 따져 보면서 각 글을 비교, 종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종합하면, 다문서 읽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문서 읽기는 독자가 둘 이상의 글 자료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주제적으로 유사한, 복수의 글 자료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서 독자는 각 단일 자료의 내용 및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자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다문서 자료의 종합적인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다문서 읽기에서의 글들은 글의 질, 내용의 수준, 저자의 수준 및 관점 등이 비동질적이며, 어느 하나의 글이 다문서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III. 다문서 읽기 연구의 이론적 배경

다문서 읽기 이론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두 연구 흐름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첫 번째 흐름은 구성주의 관점의 비롯된 상호텍스트성 연구이고, 두 번째는 역사교육연구에서 시작된 전문가-초보자 비교연구이다. 이 두 연구 흐름을 종합하여, 인지적 관점에서의 다문서 읽기 모형이 수립되었다.

〈그림 2〉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상호텍스트성 연구’와 ‘역사교육에서의 전문가-초보독자 비교 연구’가 어떻게 ‘다문서 읽기 모형’으로 발전하였는지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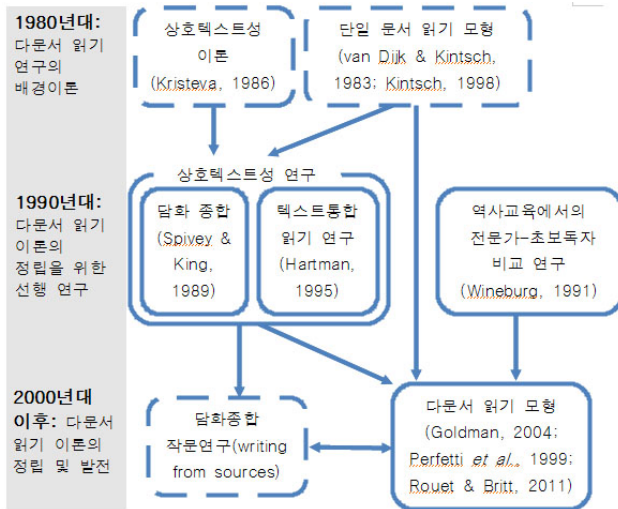


그림 2. 다문서 읽기 이론의 전개 흐름

1. 상호텍스트성 연구

상호텍스트성 연구의 기원은, 한 저자가 생산한 글이 그 자신의 독창적인 창조물이 아니며 기존 다른 글의 차용 및 변형이라는 Kristeva(1986)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관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독자가 하나의 글을 읽을 때, 지금 읽고 있는 글의 내용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과 연결된 다른 글을 떠올리고 연관 지으며 읽게 되는 것 역시 상호텍스트성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처럼 상호텍스트성이란 하나의 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저자의 온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글과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적, 문학적, 기호학적 관점을 나타낸다. 본래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이 텍스트 간의 연결 관계와 그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문식성 영역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는 독자(필자)가 읽기 상황에서 각각의 글을 어떻게 연결하고 종합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Spivey와 King(1989), Hartman(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pivey와 King은 글

을 쓰기 위해 어떻게 독자가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고 연결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지녔다면, Hartman은 독자가 어떻게 다양한 자료를 ‘이해’하느냐에 대한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 큰 틀에서 두 연구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독자(필자)가 여러 글에서 얻은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연결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Spivey와 King(1989)은 학생들이 여러 글 속에 정보를 통합하여 읽고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관심이 있었다.⁵ 이 연구에서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에게 로데오(거친 말을 오래 타거나 길들이는 경기)에 관한 3개의 글을 읽게 한 후에, 학생들이 쓴 글쓰기를 분석하였다. 글쓰기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내용을 통합하며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중요 내용을 글쓰기에 담는 능력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용, 통합하는 양상이 발달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발달적인 개인차 외에도 여러 자료를 통합하여 글을 쓰는 요인으로는 과제 요인을 들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여러 글을 읽고, 주장하는 글, 이야기, 요약문, 설명문을 쓰게 한 연구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는 학생들이 이야기 과제를 쓰는 학생에 비해 더 많은 변형, 통합, 인과성을 보이는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Wiley & Voss, 1999).

Spivey와 같은 담화종합 연구자가 필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여러 자료를 이용하고 종합하여 글을 쓰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Hartman(1995)은 여러 글을 읽는 학생들의 읽기 과정 자체를 주목하였다. Hartman은 학생들의 다문서 읽기 양상을 사고 구술(think-aloud) 방법으로 기술하면서, 학생들이 ‘현재 읽고 있는 글(primary endogenous)’에 초점을 두는지, ‘전에 읽었던 글(secondary endogenous)’과 연관 지으며 읽는지, 배경지식과 같은

5 Spivey는 자신의 연구를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행위를 읽기와 쓰기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담화종합(discourse synthesis)’이라 명명하였다. 다른 표현으로 담화종합을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쓰기(writing from [multiple] sources)’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읽기 과제 외부요인(exogenous)’에 초점을 두는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현재 읽는 글 내용에 치중하는 글 중심(logocentric) 독자, 여러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상호텍스트적(intertextual) 독자, 자기 생각으로 주어진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저항적(resistance) 독자로 나뉘는 모습을 밝혔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글 자료의 통합 과정에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다문서 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상호텍스트성 연구는 독자(필자)가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독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또한 독자의 자료 통합능력이 발달적이고, 개인차가 있으며, 과제 상황에 영향을 받음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상호텍스트성 연구는 독자가 어떻게 자료를 선택하고 연결하는지를 밝힘으로써 다문서 읽기 이론의 발전의 토대에 기여하였다.

2. 역사 교육에서의 전문가-초보독자 비교 연구

다문서 읽기 연구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연구는 역사 교육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초보독자(expert-novice) 비교 연구’이다. 앞서 언급한 상호텍스트성 연구가 학생들이 여러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여 통합하는지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면, 전문가-초보독자 비교 연구는 다문서 읽기에 능숙한 전문가가 초보 독자에 비해 어떻게 다르게 읽는지, 어떤 요인을 바탕으로 역사적 자료를 평가하고 구분하며 통합하는지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전문가-초보독자 비교 연구는 문식성(literacy) 교육 분야에서보다 역사 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역사 교육에서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구분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1차 자료(primary source)와 2차 자료(secondary source)의 구분이다. 과거에서 당대의 인물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만든 자료들이 1차 자료이고, 후대 역사가나 다른 사람에게서 해석되어 작성되거나 구성된 자료들이 2차 자료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료를 구분 및 평가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VanSledright, 2002).

다문서 읽기와 관련한 전문가-초보자 연구는 역사가가 어떻게 다양한 사료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통합하는가를 초보독자와 비교하며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Wineburg(1991)는 역사 교육 분야를 다문서 읽기 연구 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이후 다문서 읽기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Battlefield of Lexington)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가와 능숙한 고등학생 독자가 각각 다문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종합하는지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역사가는 여러 문서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데에 고등학생 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세 가지 발견적 전략(heuristics)을 사용하였다. 역사가의 첫 번째 전략은 ‘출처확인(sourcing)’으로 역사가들은 문서를 읽기 전에,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이 출처가 편향되었는지, 자료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판별한다. 두 번째로 역사가들은 서로 다른 문서와 자료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이 문서들이 역사적 사건을 온전히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강확인(corroboration)’한다. 이에 덧붙여 역사가들은 자료가 씌어진 시간적 공간적인 맥락이 문서 작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맥락화(contextualization)’를 시도한다. 초보자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독자 역시 각각의 역사 자료를 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도는 역사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Wineburg는 그 이유를 고등학생들은 다문서 읽기의 경험이 부족하며 역사가들이 사용한 이들 세 전략들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Wineburg의 연구 이래로 독자가 다양한 글자료를 이해하고, 이용하여 어떻게 역사관련 다문서를 읽고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Stahl *et al.*, 1996; VanSledright, 2002), 이러한 연구 방법은 과학교육 영역에서의 다문서 읽기 연구로 확대 된다(Bråten *et al.*, 2009; Stadtler & Bromme, 2007). 다문서 읽기에서 출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

적됨에 따라, 이후 다문서 읽기 연구의 이론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3. 다문서 읽기 모형

앞서 언급한 두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다문서의 내용과 출처를 독자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표상하는지, 다문서 읽기 과정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첫 번째 이론적 기초를 다진 연구는 Perfetti 외(1999)에서 수행한 「다문서 표상에 관한 이론(Toward a theory of documents representation)」이다. Perfetti 외(1999)는 기존의 단일 텍스트 읽기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이 다문서 읽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Kintsch(Kintsch, 1998; van Dijk & Kintsch, 1983)의 읽기 모형은 단일 글 독해를 설명하는 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증된 이론 체계이다. Kintsch는 독자가 텍스트 자체의 정보를 토대로 의미를 구성하는 기저 모형(textbase model)과, 기저 모형을 토대로 독자가 사전지식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상황 모형(situation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두 모형은 독자의 단일 문서에서의 독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력이 있으며, 이후 여러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널리 받아들여진 연구이다(Goldman, 2004; Rouet, 2006).

Perfetti의 다문서 읽기 이론에 따르면, Kintsch의 기존 이론은 독자가 기저 모형과 상황 모형을 통해 ‘단일 글 읽기’에서 통일성을 지닌 심리 표상(coherent mental representation)을 구현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다만 이 이론은 ‘다문서 읽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는 독자에게 제시된 저자의 관점이나 글의 내용, 수사, 세부 정보 및 글의 질이 상이하므로(자료의 비동질성), 독자가 어떻게 여러 비동질적인 자료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종합하여 읽는지에 대하여 Kintsch의 이론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이한 자료를 읽는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 독자는 어떻게 통일성을 지

닌 심리 모형을 구현하는가? Perfetti와 그의 동료들은 독자가 문서 내의 정보의 출처를 인식하고, 출처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층위의 심리적 표상을 설정함을 밝혔다. 이 심리적 층위가 바로 상호텍스트 모형(intertext model)이다. 이 상호텍스트 모형은 독자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파악하고 구분함을 나타낸 것이다. Kintsch의 모형과 Perfetti의 모형의 핵심적인 구조적 차이는 새로운 ‘상호텍스트 모형’이라는 심리 표상의 층위를 설정한 것에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서 읽기 모형은 기존의 단일 문서 읽기 모형, 상호텍스트성 연구, 역사교육에서의 전문가-초심자 연구 흐름을 아우르는 연구가 되었으며, 이후 다문서 읽기 연구는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Perfetti의 다문서 읽기 모형은 다문서 읽기를 인지적으로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어 이후 다문서 읽기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Goldman(2004)과 Rouet(2006)의 다문서 이론에 영향을 끼쳤으며, Rouet과 Britt(2011)의 다문서 과제기반 학습 모형(MD-TRACE model; Rouet & Britt, 2011)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IV. 다문서 읽기 연구의 발전 양상 및 전망

1. 다문서 읽기 연구의 발전 양상

Perfetti의 다문서 읽기 모형 전후로, 다문서 읽기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론적으로는 다문서 읽기를 설명하는 심리 모형(mental model)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문서를 설명하는 Kintsch(van Dijk & Kintsch, 1983)의 독해 모형이 Perfetti 외(1999)의 다문서 모형으로, 그리고 Rouet과 Britt(2011)의 MD-TRACE 모형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이론의 변화와 맞물려, 다문서 읽기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역사 교육에서의 독자가 여러 역사적인 문서를 어떻게 비교·평가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면(VanSledright, 2002; Wineburg, 1991), 이제는 점차 과학 및 일상 영역에서의 다문서 읽기(Bråten *et al.*, 2009; Stadtler & Bromme, 2007)로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연구의 대상 역시 기존에는 전문가나 대학생과 같은 능숙한 독자가 과거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으나(Stahl *et al.*, 1996; Wineburg, 1998), 최근에는 초등학생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Rouet *et al.*, 2013; Wolfe & Goldman, 2005).

연구의 주제도 다변화되었다. 초창기 다문서 읽기 연구는 전통적으로 읽기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사전 지식이나 출처 확인 기능(sourcing skill)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이후 인식론적 신념(epistemic belief), 출처 정보에 대한 선호도(trustworthiness)(Bråten *et al.*, 2009), 주제에 관한 신념(topic belief)(Kardash & Howell, 2000) 등으로 그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서 읽기 연구는 점차적으로 그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다문서 읽기의 텍스트가 역사에서 과학까지 포함하는 주제로, 연구의 대상이 전문가에서 초등학생까지 포함되는 수준으로, 연구의 주제가 인지적 요인에서 비인지적 요인까지를 아우르는 정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2. 다문서 읽기 연구의 연구 진척 상황

다문서 연구의 발전 양상에 따라, 다문서 읽기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고 있다. 다문서 연구의 진척 상황을 ‘다문서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서 읽기 과정 및 전략’, ‘다문서 읽기의 발달적 측면과 교육효과’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표 2).

첫째, 다문서 읽기에는 다양한 인지적·정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단일문서 읽기에서 강조되는 사전지식의 효과(Bigot & Rouet, 2007)뿐 아니라, 상위 인지(Stadtler & Bromme, 2007), 인

식론적 신념(Rukavina & Daneman, 1996; Bråten *et al.*, 2008), 주제에 관한 신념(Kadarsh & Howell, 2000; Kim, 2014), 출처에 대한 민감성 및 선호도(Bråten, Strømsø, & Britt, 2009)가 다문서 읽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다문서 읽기 과정 및 전략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하나 하나씩 읽기도 하지만(Maggioni *et al.*, 2010; Stahl *et al.*, 1996), 독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순서와 전략을 이용하여 읽기도 한다(Afflerbach & Cho, 2009; Wineburg, 1998; Wolfe & Goldman, 2005). 다문서 읽기에서는 하나의 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문서들을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내용을 통합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다문서 읽기가 단일 글 읽기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다문서 읽기의 교육심리학적인 기초연구에서 독자의 다문서 읽기 발달 및 교수 학습의 효과 연구까지 연구의 외연이 넓혀지고 있다. 대개 글을 잘 읽는 능숙한 고등학생 독자라 할지라도, 다문서 읽기에 능숙하지 못하다(Stahl *et al.*, 1996; Wineburg, 199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는 문서의 출처정보를 파악하고 내용을 통합하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이 학생들에게 역사 시간에서 출처를 파악하는 수업(Britt & Aglinskias, 2002; Nokes, Doles, & Hacker, 2007), 상위인지와 출처를 평가하는 수업(Stadtler & Bromme, 2002)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다문서 읽기에서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역사 교과에 국한된 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다문서 읽기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표 2. 다문서 읽기의 연구 분야와 결과의 예시

연구 대상		연구 결과
주요 요인	사전지식	• 사전지식은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Bigot & Rouet, 2007), 출처정보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핵심내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독해를 돕는다(Bråten, Strømso, & Salmerón, 2011). • 영역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독자는 특정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다문서 읽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Rouet, Favart, Britt, & Perfetti, 1997; Wineburg, 1998).
	상위인지	• 상위인지는 다문서 읽기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tadler & Bromme, 2007).
	인식론적 신념	• 높은 인식론적 신념(epistemic beliefs)을 가진 독자는 기초적인 인식론적 신념을 지닌 독자보다 다문서 읽기를 잘 한다(Rukavina & Daneman, 1996; Bråten & Strømso, 2010).
	주제적 신념	• 독자가 특정 주제에 관한 신념(topic beliefs)이 있을 경우, 이 신념은 사전지식과 같이 독해과정에 영향을 미친다(Kadarsh & Howell, 2000; Kim, 2014).
	출처 민감성	• 독자는 보다 중요한 자료(예: 1차 자료)가 포함된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읽기 수준을 보인다(Rouet, Britt, Mason, & Perfetti, 1996). • 모든 학생이 출처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Britt & Aglinskas, 2002), 출처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경우 독해 능력이 높다(Bråten, Strømso, & Britt, 2009; Strømso, Bråten, & Britt, 2010).
다문서 읽기 과정 및 전략		• 독자는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 뒤에 읽는 글보다, 첫 번째로 읽는 글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Mannes, 1994; Stahl <i>et al.</i>, 1996). • 대개의 독자들은 처음 글부터 끝까지 선조적으로 글을 읽으나(Maggioni <i>et al.</i>, 2010; Stahl <i>et al.</i>, 1996), 능숙한 독자들은 읽기 목적을 고려하면서 글 전체를 조망하고, 출처정보를 확인하며, 내용과 출처의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글을 비교, 연결하며 읽는다(Afflerbach & Cho, 2009; Wineburg, 1998; Wolfe & Goldman, 2005).
발달과 교육	발달 측면	• 초등학생 독자도 출처정보의 차이와 출처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이해하나(Rouet <i>et al.</i>, 2013; Wolfe & Goldman, 2005), (대학생포함) 대개의 독자들은 다문서 읽기에는 능숙하지 못하다(Stahl <i>et al.</i>, 1996; Wineburg, 1991).
	교육 효과	• 학생들의 다문서 읽기 능력은 수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Britt & Aglinskas, 2002; Nokes, Doles, & Hacker, 2007; Stadler & Bromme, 2007).

3. 다문서 읽기 연구의 전망

앞서 살핀 다문서 읽기 연구의 발전 양상과 연구 진척 상황을 토대로,⁶

6 2013년도 *Cognition and Instruction* 저널 31권 2호에서는 다문서 읽기가 특별판으로

다문서 읽기 연구의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다문서 읽기 연구와 디지털(인터넷) 읽기 연구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다문서 읽기 연구는 주로 인쇄된 글의 내용을 독자가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관심을 가진 반면, 디지털 읽기 연구는 주로 시청각적 영상적 매체의 속성과,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및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읽기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Foltz, 1996).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의 많은 독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평가하며, 종합한다. 즉 현대사회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다문서 읽기와 인터넷 읽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다문서 읽기 연구와 인터넷 읽기 연구 풍토는 이러한 읽기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다문서 읽기 연구와 디지털 읽기 연구 분야가 협력을 이루어 발전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필요한 읽기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발견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다문서 읽기의 측정·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다문서 읽기 연구는 주로 피험자들이 쓴 글을 평가하거나, 문장 판별 과제(sentence verification task; Royer, Carlo, Dufresne, & Mestre, 1996)로 측정된 결과를 통하여 독자의 다문서 읽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다문서 읽기 평가 방법을 정교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이 다문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더욱 다양한 많은 평가방법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서 읽기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다문서 읽기의 과정과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선정되어 관련 연구 8편이 실렸다 이 개별 연구들은 지금까지의 다문서 읽기의 연구를 조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이들 연구에서 보면, 다문서 읽기 상황에서 상충되는 정보(conflicting information)을 독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기본적 연구(Maier & Richter, 2013)부터 학생들에게 다문서 읽기에서 출처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응용연구(Rouet *et al.*, 2013)까지 다양한 연구와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연구 역시 본고에서 살핀 다문서 읽기 연구의 현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탐색 중심이었다.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문서 읽기를 어떻게 수업상황에서 가르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교실수준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작문교육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화종합 연구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다문서 읽기지도와 쓰기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인지적인 영역 외에, 비인지적인 영역에서의 다문서 읽기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문서 읽기를 유발·지속시키는 동기와 태도에 관한 연구, 다문서 읽기와 인식론적 신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제에 관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 다문서 읽기의 양상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 다문서 읽기를 지속하게 하는 자아의지에 관한 연구 등은 다문서 읽기를 보다 깊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다문서 읽기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며, 21세기에 꼭 필요한 문식성(literacy)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과거와는 달리 이 정보들은 모두가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들 정보가 지닌 가치와 내용, 수준이 각기 다르다. 다양한 정보 중에서 독자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별·평가하고, 내용을 비교하고 통합하여, 읽기 목적에 맞게 다문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다문서 읽기의 핵심이다. 독자가 기존의 정보를 수용하는 지점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별하고 통합하여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보의 새로운 생산 및 창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자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독자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서 읽기의 개념을 밝히고, 다문서 읽기의 전개 양상

및 발전 방안을 살폈다. 다문서 읽기는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주제적으로 유사한, 복수의 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다문서 읽기는 단일 문서 읽기에 비해 복잡성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독자가 단일 문서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문서 간의 관계성도 파악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서 읽기는 단순히 복수의 글을 읽고 종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글에 대한 특성(출처와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출발한 다문서 읽기 연구는 1980년대의 배경이론으로 출발하여, 1990년대에 이론적인 정립을 위한 사전연구가 실행되었으며, 2000년대의 이론화와 더불어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다문서 읽기에 해당하는 인지적, 비인지적 요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서 읽기 성과를 교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연구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다문서 읽기 지도 연구(김도남, 2000; 유정희, 2006; 백혜선, 2014), 다문서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연구(박소희, 2009; 이윤빈, 2013; 유승아, 2013), 다문서 읽기 전략 검사 도구 타당도 검증 연구(최숙기, 2014)가 수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서 읽기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국내의 다문서 읽기 연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지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많은 국내 연구 상황에서 실험자료로 제공하는 다문서 글(자료)은 대개 동질적인 수준의 자료들이었다. 학생들이 주로 수준과 내용이 비슷한 글들을 읽고 읽기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학생(독자)들에게 정보를 판별하고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으며, 연구자는 학생들의 그림 모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문서 읽기는 정보 출처의 판단 및 평가를 포함한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 등은 거짓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고, 또한 읽는 자료 간에 질적·양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

여 앞으로의 다문서 읽기 연구에서는, 비동질적인 글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문서 상황에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내용을 통합하는지에 대한 과정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식성 분야 안팎의 간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식성 영역 내의 간학문적인 연계로는 읽기와 쓰기(담화종합), 인쇄 매체와 디지털매체의 다문서 읽기,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의 다문서 읽기를 들 수 있다. 또한 문식성 영역 외의 간학문적인 노력으로 사회 및 과학 교과와 같은 내용 교과 영역(content area)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는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실제의 교육 현장 수업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많은 연구는 이론적 탐색과 실험상황에 그친 면이 많았다. 앞으로 각 학년별 학생들의 다문서 읽기 발달 양상을 파악한 후, 실제적인 교수·학습·평가로 이루어지는 다문서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검증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14. 7. 31. 투고되었으며, 2014.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호)』.
- 김도남(2002),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소희(2009), 「중학생들의 담화 종합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변형 양상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연구』 제2권 1호, pp. 187-226.
- 백혜선(2014), 「소논문 독서 토의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적 연결 양상 연구」, 『독서연구』 31, pp. 267-286.
- 유승아(2013), 「초등학생 필자의 인터넷 정보를 활용한 담화 종합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2006),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읽기 교과서 구성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빈(2013), 「담화 종합을 통한 텍스트 구성 양상 연구: 쓰기 과제 표상과 텍스트 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병영 · 서수현(2014), 「미국 공통핵심기준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49권, pp. 626-656.
- 최숙기(2014), 「복합 문서 처리 전략 검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전략 수행 양상 분석」, 『작문연구』 21, pp. 291-313.
- Afflerbach, P., & Cho, B.(2009), "Identifying and describing constructively responsive comprehension strategies in new and traditional forms of reading," In S. E. Israel & G. G. Duffy(Eds.), *Handbook of Research on Reading Comprehension*, pp. 69-90.
- Bigot, L., & Rouet, J. F.(2007), "The impact of presentation format, task assignment, and prior knowledge on students' comprehension of multiple online documents,"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9(4), pp. 445-470.
- Bråten, I., Strømsø, H. I., & Britt, M. A.(2009), "Trust matters: Examining the role of source evaluation in students' construction of meaning within and across multiple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44, pp. 6-28.
- Bråten, I., & Strømsø, H. I.(2010), "Effects of task instruction and personal epistemology on the understanding of multiple text about climate change," *Discourse Processes* 47, pp. 1-31.
- Britt, M. A., & Aglinskis, C.(2002), "Improving students' ability to identify and use source information," *Cognition and Instruction* 20, pp. 485-522.
- Britt, M. A., Perfetti, C. A., Sandak, R. & Rouet, J. F.(1999), "Content integration and source separation in learning from multiple texts," In S. R. Goldman, A. C. Graesser, & P. vanden Broek(Eds.), *Narrative comprehension, causality, and coherence: Essays in honor of Tom Trabasso*(pp. 209-23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itt, M. A., & Rouet, J.-F.(2012), "Learning with multiple documents: Component skills and their acquisition," In J. R. Kirby & M. J. Lawson(Eds.), *Enhancing the quality of learning: Dispositions, instruction, and learning processes*(pp. 276-314), New

-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ltz, P. W.(1996), "Comprehension, coherence, and strategies in hypertext and linear text," In J. F. Rouet, J. J. Levonen, A. Dillon, & R. J. Spiro(Eds.), *Hypertext and cognition*(pp.1 09-136),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oldman, S. R.(2004), "Cognitive aspects of constructing meaning through and across multiple texts," In N. Shuart-Faris & D. Bloome(Eds.), *Uses of intertextuality in classroom and educational research*(pp. 317-351),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Goldman, S. R., Braasch, J. L., Wiley, J., Graesser, A. C., & Brodowinska, K.(2012), "Comprehending and learning from Internet sources: Processing patterns of better and poorer learners," *Reading Research Quarterly* 47(4), pp. 356-381.
- Kardash, C. M., & Howell, K. L.(2000), "Effects of epistemological beliefs and topic-specific beliefs on undergraduates' cognitive and strategic processing of dual-positional 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pp. 524-535.
- Kim, J-Y.(2014), "Strategy and bias in comprehension of multiple texts: How do readers with topic beliefs use strategies when reading controversial document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Kintsch, W.(1998), *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steva, J.(1986), "Word, dialogue, and the novel," In T. Moi(Ed.), *The Kristeva reader*(pp. 35-6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u, D. J., Jr. Kinzer, C. K., Coiro, J. L., & Cammack, D. W.(2004), "Toward a theory of new literacies emerging from the Internet and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R. B. Ruddell & N. Unrau(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5th., pp. 1570-1613),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Maggioni, L., Fox, E., & Alexander, P. A.(2010), "When change does not mean progress: Historical thinking intertextual reading, and domain-specific epistemic beliefs in the context of one high-school history cla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Denver, CO.
- Maier, J., & Richter, T.(2013), "Text belief consistency effects in the comprehension of multiple texts with conflicting information," *Cognition and Instruction* 31(2), pp. 151-175.
- Mannes, S.(1994), "Strategic processing of 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pp. 577-588.
-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NGA) Center for Best Practices &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2010),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and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Washington, DC.
- Nokes, J. D., Dole, J. A., & Hacker, D.(2007), "Teaching high school students to use heuristics while reading historical 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pp. 492-504.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2009),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 Key competenc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CED.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document/44/0,3746>,

- Perfetti, C. A., Rouet, J-F., & Britt, M. A.(1999), "Toward a theory of document representation," In H. van Oostendorp & S. R. Goldman(Eds.), *The construction of mental representation during reading* (pp. 99-122). Mahwah, NJ: Erlbaum.
- Rouet, J-F.(2006), *The skills of document use: From text comprehension to Web-based learning*, Mahwah, NJ: Erlbaum.
- Rouet, J-F., & Britt, M. A.(2011), "Relevance processes in multiple document comprehension," In M. T. McCrudden, J. P. Magliano, & G. Schraw(Eds.), *Text relevance and learning from text*(pp. 19-52),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Rouet, J. M., Braasch, J. L., Britt, M. A., & Rouet, J-F.(2013), "Teaching fourth and fifth graders to evaluate information sources during text comprehension," *Cognition and Instruction* 31(2), pp. 204-226.
- Royer, J. M., Carlo, M. S., Dufresne, R., & Mestre, J.(1996), "The assessment of levels of domain expertise while reading," *Cognition and Instruction* 14(3), pp. 373-408.
- Rukavian, I., & Daneman, M.(1996), "Integration and its effect on acquiring knowledge about competing scientific theories from 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pp. 272-287.
- Spivey, N. N., & King, J. R.(1989), "Readers as writers composing from sourc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44, pp. 6-28.
- Stadler, M., & Bromme, R.(2007), "Dealing with multiple documents on the WWW: The role of metacognition in the formation of document nodes,"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2, pp. 191-210.
- Stahl, S. A., Hynd, C. R., Britton, B., McNish, M. M., Bosquet, D.(1996), "What happens when students read multiple source documents in histor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1, pp. 430-456.
- Strømsø, H. I., Bråten, I., & Britt, M. A.(2010), "Reading multiple text about climate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for sources and text comprehension," *Learning and Instruction* 20, pp. 192-204.
- van Dijk, T. A., & Kints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VanSledright, B. A.(2002), "Fifth graders investigating history in the classroom: Results from are searcher-practitioner design experi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 pp. 131-160.
- Wiley, J., & Voss, J. F.(1999), "Constructing arguments from multiple sources: Tasks that promote understanding and not just memory for 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pp. 301-311.
- Wineburg, S.(1991), "Historical problem solving: A study of the cognitive processes used in the evaluation of documentary and pictorial evid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pp. 73-87.
- _____(1998), "Reading Abraham Lincoln: An expert/expert study in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texts," *Cognitive Science* 22, pp. 319-346.
- Wolfe, M., & Goldman, S.(2005),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text processing and reasoning," *Cognition and instruction* 23, pp. 467-502.

다문서 읽기 연구의 연구 동향과 전망

김종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여러 문서를 읽고, 평가하며, 종합하는 능력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문서 읽기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이론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문서 읽기의 연구 동향을 살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문서 읽기는 독자가 둘 이상의 글 자료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독자는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주제적으로 유사한, 복수의 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다문서 읽기 연구는 (1) 상호텍스트성 연구, (2) 역사교육에서의 전문가-초보독자 비교연구, (3) 다문서 읽기 모형의 수립화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다문서 읽기과정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다문서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비인지적 요인이 밝혀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다문서 읽기 과정 연구에 더하여, 다문서 교수·학습방안에 대한 연구가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다문서 읽기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다문서 읽기, 담화 종합, 상호텍스트성

ABSTRACT

A Review of Research on Multiple Text Comprehension

—Backgrounds,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Kim Jongyun

People produce and consume a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in the age of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e of the essential proficiencies required in this society is a set of literacy skills to read, evaluate, and synthesize information from multiple documents (i.e., multiple text comprehension).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multiple text comprehension, reviews the previous backgrounds and developments of the research, and provides future directions.

Multiple text comprehension is defined as constructing meaning from more than two texts that are timely adjacent and thematically similar. The research on multiple text comprehension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ree relevant studies/models: (1) intertextuality studies, (2) comparative studies of expert-novice reading in historical education, and (3) document models.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research findings about cognitive and non-cognitive factors that influence multiple text comprehension, as well as reading process of multiple documents. In addition, researchers become to focus on instructional studies of how to teach and assess comprehension of multiple texts.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trends and findings, remaining work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research on multiple text comprehension are discussed.

KEYWORDS Multiple Text Comprehension, Discourse Synthesis, Intertextuality